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6. 24(금) 18:00		
배포일시	2011. 6. 24(금) 11:00	담당부서	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
담당과장	조원경(2150-7610)	담당자	이중진 사무관(2150-7612)

제목: 제105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

-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.24(금) 16:30, 정부중앙청사에서 『제 105차 대외경제장관회의』를 개최하여,
- ‘한-EU FTA 준비현황’, ‘한-인니 경제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’, ‘우리나라의 무역금융 현황 및 공적무역금융 지원방향’, ‘2011년 하반기 세계경제 주요이슈 및 시사점’ 등을 논의하였음

<대외경제정책 운영방향>

- 박재완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“국가간 칸막이”를 낮춰 우리 경제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,
- 전략적 대외개방을 통해 교육·의료·관광 서비스업 등의 “산업 보호 칸막이”를 낮추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해 나갈 것임을 언급
 - 또한,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과정에서 성장의 수출 의존도가 더욱 심화*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여건상 내수 진작책과 더불어 수출경쟁력 강화가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

* 무역의존도(수출입/GDP,%): ('07년) 69.4 → ('08년) 92.4 → ('09년) 82.4 → ('10년) 87.9 → ('11.1/4분기) 97.4

□ 특히, 최근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격차가 커지면서 경제 지표의 회복이 국민들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,

- 대외부문의 성장을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, 동반성장 등 당면한 경제현안과 연계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

<최근 대외경제 여건 -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>

□ 박재완 장관은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, 세계경제의 1/3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*하고 있음을 언급

- *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종료, 중국의 금리인상 가능성, 원자재 가격향방 등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상존

□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국제금융시장과 대외교역 등을 통해 우리경제에 예상치 못한 파급력을 지닐 수 있는 만큼,

- 관계부처에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대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

< 거대 선진경제권 및 신흥경제권과의 협력강화 >

□ 박재완 장관은 7.1자로 잠정 발효될 예정인 한-EU FTA가 EU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는 물론,

- 수입가격 하락을 통한 서민물가 안정과 법률·세무·회계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통한 우리 산업구조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
- 특히, 한-EU FTA가 대기업만을 위한 FTA가 되지 않도록,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여 대기업-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

□ 또한,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흥 경제권과의 협력기반 강화가 중요한 시점에서,

- 최근 개최된 한-인니 제1차 경험 T/F가 “Post 브릭스의 선두 주자”인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새롭게 정립·발전 시켰다고 평가

< 견고한 무역지원 시스템 구축 >

□ 박재완 장관은 선진경제권 및 신흥경제권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서는,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외활동 지원을 위한 견고한 무역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

- G20 등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무역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는 만큼,
- 우리도 금년 “무역 1조 달러 시대” 개막을 앞두고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공적 수출신용기관의 역할을 모색하여야 하며,
 - 특히, 우리기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신흥 개도국과의 무역 활성화, 일자리 창출 및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중소기업 육성*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됨을 강조

*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(%)

- ('01년) 42.9 → ('03년) 42.2 → ('05년) 35.6 → ('07년) 30.5 → ('09년) 32.3

※ 「한-EU FTA 준비현황(관세청)」, 「우리나라의 무역금융 지원현황 및 공적 무역금융 지원방향(기획재정부)」 안건은 소관부처에서 별도 보도자료 배포

※ <별첨> 「하반기 세계경제 주요이슈 및 시사점(국제금융센터)」

기획재정부 대변인

2011년 하반기 세계경제 주요 이슈 및 시사점

2011. 6. 24

국 제 금 융 센 터

I. 세계경제 최근 동향	1
II. 주요 이슈	2
1. 美 경제 Soft Patch 점검	2
2.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	4
3. 유럽 재정위기 심화	6
4. 국제유가 상대적 안정 가능성	8
5. 美 달러화 추세적 강세 가능성	9
6. 국제자금흐름의 변동성 확대	10
III. 시사점	11

I. 세계경제 최근 동향

- **[동향]** 세계경제는 금년 1분기 중동지역 정정불안, 일본 대지진, 신흥국 긴축 지속,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성장세 둔화
 - (미국) 고용 및 주택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제조업 활동도 위축되며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3.1%에서 금년 1분기 1.8%로 둔화
 - (중국) 투자확대 불구 수출 및 소비 부진 등으로 금년 1분기 성장률 9.7%로 전분기(9.8%) 대비 소폭 둔화하였지만 기저효과('10. 1분기 11.9%) 감안 시 견조한 성장세 지속 평가
 - (일본) 대지진 여파로 2분기 연속 (-) 성장하였으며 재해 복구 대응 예산(총 20조엔 내외) 편성으로 재정상황 악화
 - (유로존) 대외수출 호전 등으로 금년 1분기 성장률은 0.8%로 양호했으나 중심국과 여타 국가간 성장격차 지속
- * '11.1/4분기 경제성장률(%): 독일(1.5), 프랑스(1.0), 스페인(0.3), 이태리(0.1), 포르투갈(Δ 0.6)
- **[전망]** 하반기 세계경제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
 - 글로벌 인플레이 압력, 유럽 재정위기, 美 경기둔화 조짐 등이 세계경제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요국 재정악화로 경기둔화에 대한 대응력도 저하
 - IMF는 금년 세계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0월 4.8%에서 금년 6월에는 4.3%로 하향조정('10년 성장률 5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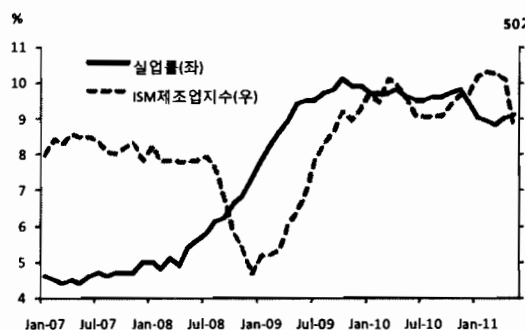
II. 주요 이슈

1 美 경제 Soft Patch 점검

□ **[동향]**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 및 기업활동, 주택경기 등 제반 경제지표가 악화되며 경기둔화 우려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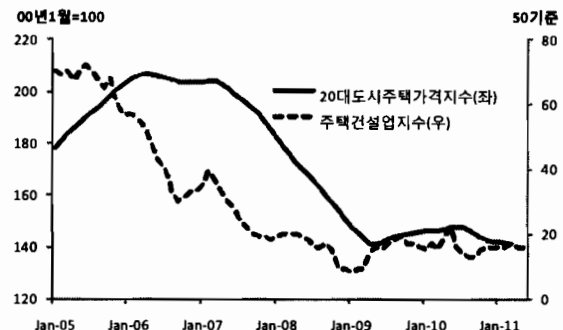
- **(비농업 고용)** 제조업 부문 고용 감소 전환으로 1~4월 평균 19만명 증가에서 5월 5만 5천명 증가로 큰 폭 축소
 - 향후 고용변동을 예시하는 임시보조원 고용도 2개월 연속 감소
- **(ISM 제조업지수)** 1~4월 중 60 이상을 기록했으나 5월에는 53.5로 전월대비 6.9포인트 하락하며 27년래 최대폭 하락
- **(주택가격)** 20대도시 주택가격 최근 9개월 연속 하락하고 1분기 전국 주택가격은 '02. 2분기 이후 최저(S&P Case-Shiller)

<실업률 및 ISM제조업지수>



자료 : 노동부 및 ISM

<주택가격 및 주택사업지수>



자료 : Bloomberg

□ **[경기논란]** 美 경제가 Soft Patch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더블딥(Double Dip)에 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최근 대두

- **(Soft Patch 견해)** 日 부품조달 애로 해소 및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생산 및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경기는 다시 회복국면에 진입할 전망(NBER, Robert Rubin 등)

- (Double Dip 견해) 유럽 재정위기, 중동지역 정정불안,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소프트 패치가 길어지며 최악의 경우 더블딥에 진입할 가능성(오픈하이머 펀드, 월러 교수 등)

□ [전망] 미국 경제는 2분기에도 성장 둔화세가 이어지겠으나 하반기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

- 전반적으로 Soft Patch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며, 하반기에는 자동차를 비롯한 산업생산이 회복되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시 소비심리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

- 대부분 IB들은 하반기 성장률을 연 3% 이상으로 예상

- 일각에서는 재정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, 유럽 재정위기 등 위험요인들이 산재해 있어 경기회복이 불규칙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제시

<주요 IB들의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>

(전기 대비 연율%)

		'11. 1Q	'11. 2Q	'11. 3Q	'11. 4Q	'11연간	'12. 1Q	'12. 2Q	'12연간
UBS	1.8 (실적)		2.0	4.2	3.4	2.8	-	-	2.5
GS			3.0	3.3	3.3	2.6	3.0	3.0	3.2
MS			2.7	3.9	4.0	2.7	2.6	2.6	3.2
JPM			2.0	3.0	3.0	2.4	2.0	3.0	2.8
BC			2.0	3.0	3.5	2.5	3.5	3.5	3.4

□ [출구전략 지연] 최근 경제지표가 부진함에 따라 금리인상, 자산매각 등 연준의 출구전략 시행이 당초 예상보다 3~6개월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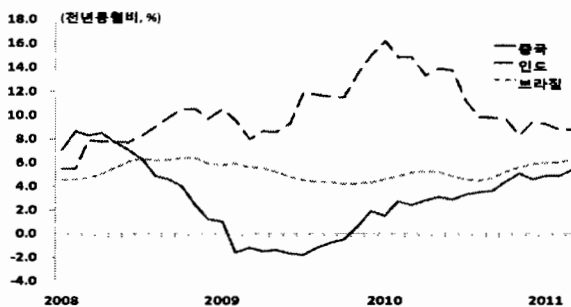
- 금년 6월말까지로 계획된 2차양적완화(QE2)는 예정대로 종료되는 가운데 기보유 증권 만기회수분의 재투자는 지속하되 3차양적완화(QE3)는 시행되지 않을 전망

2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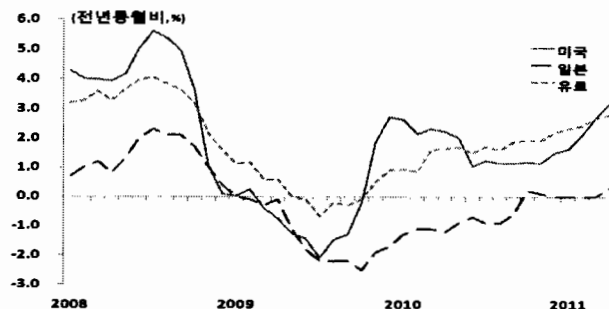
□ [동향]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신흥국은 물론 주요 선진국으로 확산 조짐

- (신흥국) 고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와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 지속
 - 중국은 1/4분기 9.7%(전년동기비)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,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(5.5%)은 8개월 연속 목표치(4%)를 상회
 - 브라질은 빠른 경기회복세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으며, 인도는 '11년 들어 5월까지 9%대 높은 물가 상승세 지속
- (선진국)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 전년동월대비 3.6%로, '10년 상승률(1.6%)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, 5월 유로권의 소비자물가상승률(2.7%)도 목표치(2.0%)를 상회

<주요 신흥국 물가상승률 추이>



<미·일·유로권 물가상승률 추이>



자료 : Bloomberg

□ [전망] 하반기 이후 원자재 시장 수급과 금융여건 등에서 물가 흐름은 상승과 하락 요인이 혼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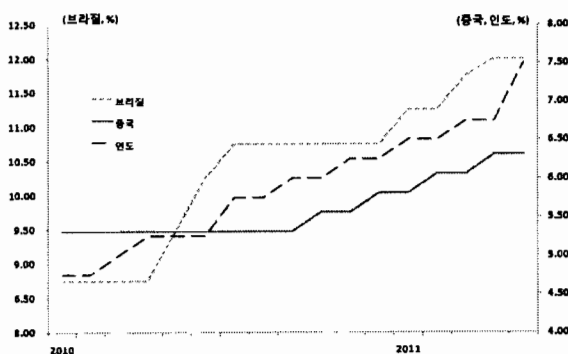
- (상승 요인) MENA(중동·북아프리카) 지역의 정정불안 재연 가능성 등으로 세계 원유시장의 공급 불안 요인이 상존

- (하락 요인) 신흥국과 유로권의 금융긴축,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은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차단하는데 기여
- (전망) 하반기에도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가격상승 요인으로 반영되겠지만, 각국의 금융긴축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

□ [영향] 물가불안에 따른 금융긴축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부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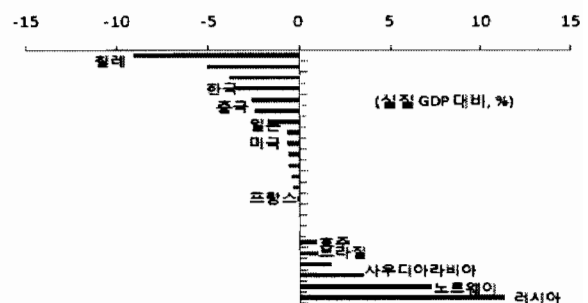
- 최근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한 신흥국의 금융긴축은 이들 국가의 성장여력을 약화시킬 전망
 - 2010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인도는 같은 해 2/4분기부터 성장세가 둔화
 - * 인도 경제성장률(%): ('10. 1/4) 9.4 → ('11. 1/4) 7.8
 - 인플레이션 차단을 위한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금융긴축 효과는 하반기에 본격화될 전망
-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은 미국을 비롯한 자원수입국의 교역손실로 이어져, 실질소득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

<주요 신흥국의 기준금리 추이>



자료 : Bloomberg

<'08년 원자재 가격급등기
각국의 교역손실 비교>



자료 : 세계은행

3 유럽 재정위기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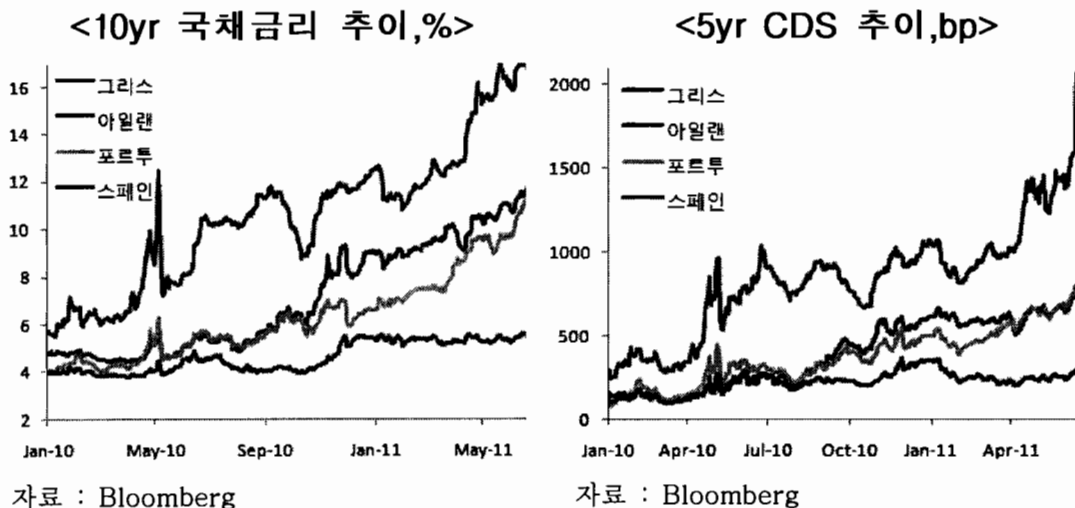
□ **[동향]**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이어 포르투갈도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으나 위기가 진화되지 못하고 그리스에서 우려가 재발

- 긴축 강화에 의한 성장 둔화로 세입이 급감하며 재정목표* 달성에 실패한데다,

* '10년 적자 목표치는 GDP의 8.1%였으나 10.5%로 발표

- 당초 목표했던 '12년 이후 중장기 국채 발행 재개가 시장 여건 상 사실상 불가능

* 그리스 '10년물 국채 금리 17.0%, 5년물 CDS 2,000bp 내외(06/22)



□ **[그리스 2차 구제안]** 이에 따라 2차 구제 금융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7월초 구체적 방안이 발표될 전망

- **(핵심 이슈)** 자발적 국채 롤오버* 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 및 자구책 규모 등이 결정될 전망

* 기존채권 만기 도래 시 유사한 만기와 조건으로 차환 발행하는 것으로 프랑스, ECB 등이 선호(Informal & voluntary roll-over)

※ 독일 등은 “만기 7년 연장(Debt swap)” 주장에서 최근 후퇴

○ (금융 지원) 추가 지원 규모는 400~550억 유로 내외, 자구책은 580~780억 유로 정도가 논의(Reuters, Bloomberg, FT)

- 1차 구제금융의 5회차 지원분(120억 유로)은 그리스 자구책 의회 통과 조건으로 7월 초에 지급할 계획

* IMF는 2차 구제금융 패키지도 마련되어야 지급한다는 입장

□ (전망) 구제안이 합의되더라도 위기 재발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여타 남유럽 국가 및 재정취약 중심국의 전염 우려 상존

○ (타결 예상) 그리스의 채권 만기 도래가 지속되고 있어 디폴트를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타결안이 마련될 전망

○ (재발 가능성) 구제안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본질적 지불능력 (solvency) 제고는 어려울 것이어서 위기는 재발할 우려

- 재정수입이 늘어나 재정지출 및 국채 만기 도래액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나 장기간 세입 감소가 예상

○ (PIIGS) 구제금융 수령 이후에도 그리스 불안이 재발함에 따라 아일랜드, 포르투갈에서도 유사 결과가 초래될 우려

-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 위주로만 대응이 이루어져 구조조정 등 근본적 문제는 남아 있는 상황

- 아일랜드가 '12년말 중장기 국채발행 재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가 점차 새로운 우려로 부각될 가능성

○ (중심국) 주변국 문제가 재부각된다면 중심국 중 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벨기에, 이탈리아에 대한 우려도 증가

4 국제유가 상대적 안정 가능성

- **[동향]** 신흥국 수요증가 및 중동 사태 등으로 급등했던 유가는 세계경제 둔화 움직임에 따라 5월 이후 조정국면
 - 두바이유, 118.98달러로 연중 최고 기록(4.28)한 후 103달러까지 하락(5.23)하였으나 최근에는 108달러 내외에서 등락
 -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나 5월 이후 하락 전환($\Delta 10.0\%$)
- **[시장시각]** 향후 유가 전망과 관련하여 하락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상승세가 재개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
 - (조정지속 견해) 유가에 투기자금에 의한 거품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고,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을 감안할 때 100달러 이하가 적정 수준(Trafigura, Marc Faber 등)
 - (상승세 재개 견해) 신흥국 수요 견조 및 리비아 생산차질 지속으로 수급여건이 악화되어 3분기(JP 모건) 및 내년 2분기(골드만 삭스) 중 브렌트유가 130달러까지 오를 전망
- **[전망]** 하반기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및 美 QE2 종료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낼 전망
 - 다만, 신흥국 수요가 견조하고 경기가 침체국면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
 - 한편, 최근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중동사태가 사우디 등 핵심 산유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

5 美 달러화 추세적 강세 가능성

□ **[동향]** 美 달러화는 제2차 양적완화(QE2), 초저금리 정책 등으로 전년말 대비 5.0%(6.23일 기준) 약세*를 기록

* 주요통화 연간 절상률(%) : 유로(6.7), 엔(0.8), 위안(2.1), 파운드(2.7), 스위스프랑(11.0), 호주달러(3.0), 원(5.4)

○ 연초부터 달러약세가 지속된 가운데(4월말 $\Delta 7.7\%$), 최근 QE2 종료 임박, 유럽 재정불안 등으로 약세폭 둔화

□ **[전망]** 美 달러화는 경기둔화 우려, 저금리 등으로 약세 추세가 좀더 지속될 전망이다, 장기적으로는 강세 전환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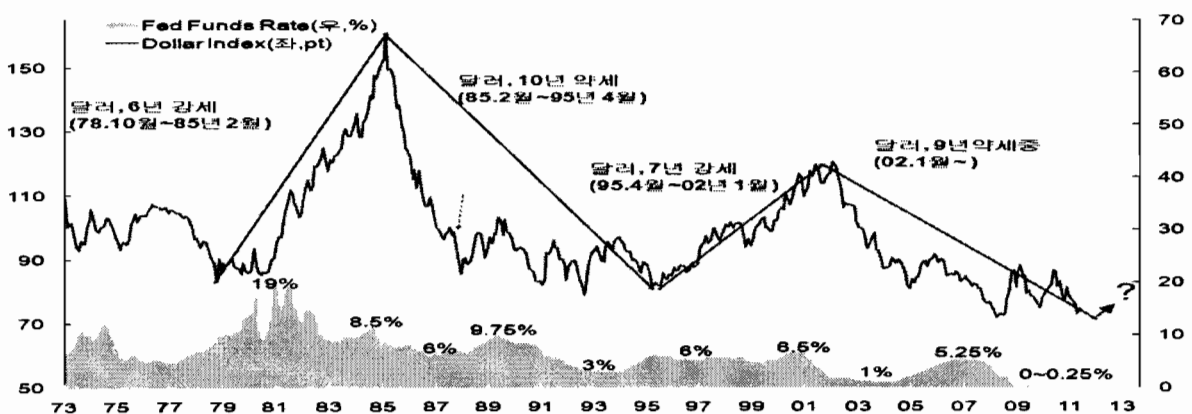
○ 특히, 연말 이후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경우, 美 금리인상은 달러강세의 주요한 요인이 될 전망

- 美 달러화는 과거 정책금리와 높은 상관성 유지

○ 골드만삭스, JP모건 등 대부분의 해외투자은행들도 출구 전략 가능성 등에 근거하여 장기적 달러 강세를 전망*

* 엔/달러 80.4엔 → 87.2엔(12개월후), 유로/달러 1.43달러 → 1.42달러

<美 달러화 및 정책금리 장기 추이>



자료 : Bloomberg

6 국제자금흐름의 변동성 확대

- **[동향]** 작년 신흥국 국제투자자금은 직접투자(FDI) 비중이 줄고, 증권투자(주식,채권) 및 은행차입(loan) 중심으로 급증

<신흥국 민간자금흐름(Private Capital Flow)> (단위: 美달러)

	FDI	주식	채권 및 차입	합계
2009년	3,568억	1,333억	1,536억	6,437억
2010년	3,707억	2,004억	4,187억	9,898억
증가	+3.9%	+50.4%	+172.6%	+53.8%

자료: 국제금융협회(IIF)

- 금년 들어서는 경기둔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, 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주식 중심으로 신흥국 투자자금 유입세 둔화

- 주식자금은 2년 연속 대규모 유입 후 올 상반기 크게 둔화*

** 亞 7개국 순매수 : ('09) \$599억 → ('10) \$645억 → ('11.1~5월) \$24억

- 채권자금은 순유입 기조 지속*, 주식자금보다 상대적 견조

* IIF 전망, ('10) \$4,187억 → ('11) \$4,667억(전년비 +11%)

- **[전망]** 향후 신흥국 자금흐름은 ① 유동성 위축 우려 ② 차익 실현 압력 ③ 위험선호 둔화 등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

- (유동성 위축) QE2 종료로 유동성 확장 기대감 약화*

* QE2 종료 후 유동성이 급격히 흡수되진 않겠지만 시장심리가 위축될 가능성

- (이익실현) 2년간 신흥증시 큰 폭 상승*, 현금화 압력

* '09년 이후 신흥국 주가가 93% 증가(선진국 주가는 39%상승)

- (위험선호 둔화) 단방향 포지션* 누적으로 위험에 취약

* 美달러를 매도하여 신흥국 자산 및 원자재 매수 (IIF)

⇒ 국가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연관성이 커지고 있어 빈번한 자금흐름 변화에 대처할 정책적 관리 필요(IMF)

Ⅲ. 시사점

- **[경기둔화]** 최근 주요국 경제지표 악화 및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주가·원자재 가격 하락 등 세계경제 불안요인 증가
 - 일부에서는 미국의 3차 양적완화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으나, 아직까지는 “일시적 경기둔화” 정도로 평가
- **[국제금융불안]** 경기회복을 위한 선진국 정책수단이 제한된 가운데,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, 세계경제 성장둔화 조짐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심화
 - 국제자금흐름이 과거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하는 패턴에서 금년에는 신흥국에 대한 투자 및 회수가 반복되는 등 불안정한 조짐
- **[자금유출 가능성]** 세계경제 둔화 및 국제금융불안 심화시,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유출 및 이에 따른 국내금융 불안 우려
 - 주식 순매수액은 '10년 21조원 증가한 반면, '11년 2.6조원 감소(5월 이후 3.7조원 감소)
 - 채권 순투자액은 '10년 17조원 증가하였으나, '11년 3.9조원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둔화(6월 이후 0.7조원 감소)
- **[해외우려]**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, 가계부채 급증, 인플레이션 압력 등 우려요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
 - 물가불안 및 가계부채 등으로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어려움이 가중(Nomura, RBS)되고, 신용카드 소비급증에 따라 카드론 및 연체 추이 모니터링 필요(모건 스탠리)